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98)(12/3/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7 장 겸손의 보호막 아래 은혜를 감춤, 1 절

시 116:5-6 - 5.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고전 15:10 -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잠 3:34 -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1. <그리스도> 내 아들이, 네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거든, 그 은혜를 드러내지 말고 감추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고하지 않으며, 그 은혜를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많이 말하지 않고, 도리어 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여 겸손히 낮추고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겨서 두려워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하다. 은혜가 있을 때의 좋은 상태는 얼마 안 있어서 금세 그 정반대의 상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상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은혜가 없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하였었는지를 생각하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진보는 단지 위로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를 거둬 가신 경우에, 겸손함과 자기부인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쉬거나, 그 밖의 다른 신앙의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메마르고 황량한 마음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여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네가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힘을 내어 자원해서 행할 때에도 이루어진다.

**말씀과 해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롬 3:24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엡 2:8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는 구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시 116:5-6 - 5.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바울은 교만함과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었다. 바울은 빌 3:4-6 에서 자신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밝혔다. 빌 3:4-6 -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행 22:3 에서도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행 22:3 -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탁월한 학자 7 명에만 부여하는 ‘랍반(Rabban)’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부여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유대교 학자로 추앙받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으로 보면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내어 놓은 위대한 고백 중의 하나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고전 15:10 -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사도가 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그와 함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도들 보다도 더 수고했지만,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진심으로 은혜를 고백한다.

은혜를 받은 바울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겼다. 빌 3:7-8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을 자신 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주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교만해 지거나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며, 계속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를 유지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중단 없는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잠 3:34 -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받을 때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살펴 보면 많은 경우 은혜와 은혜와는 반대되는 듯한 상황이 교차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광야의 척박한 현실을 계속 번갈아 가며 경험했다.

성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평탄한 길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내리막길도 걸지만 다시 숨이 차 오르는 오르막길을 걸을 수 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잔잔하고 평온한 물 위를 항해할 때도 있지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상황 모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어진다. 그러한 종류의 은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은혜이다. 이러한 은혜는 그 과정을 묵묵히 견디어 낸 사람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통과한 사람은 마지막에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영적 성숙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겸손하며, 은혜 안에 영적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은혜의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겸손히 영적 성장을 이루며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2. 여전히 영적인 암흑 속에 있는 북한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3. 우리가 속한 미국장로교단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갱신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